

조경설계에서 보행 연결성에 관한 연구

- 종로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

샤오안이 · 신혜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로의 시대 배경에서 도시 발전의 가치관은 편차가 발생하며, 도시에서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으로 삼는 '인본주의'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본주의'를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각 도시에서는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점차적으로 보행화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공간에서 보행공간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오락,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서 사람들이 가장 밀접한 도시의 열린 공간 중의 하나이다. 보행공간 경관의 형성은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도시 공공공간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사람들이 휴식하고 오락할 수 있는 광장. 둘째, 앉을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 셋째, 햇빛, 바람, 나무, 물. 넷째, 먹을거리와 음료수를 파는 이동식 판매 장소. 다섯째, 곳곳에 있는 활동 장소. 그리고 여섯째, 흥미롭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활동(William Hollingsworth Whyte). 이로 인해 도시 주요 지역의 도심 재개발을 할 때 차로를 줄여 보행로를 확대하며, 도시와 보행을 녹지 공간으로 잘 연결할 수 있는 조경 설계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만 거리 공공공간이 중요한 공공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형성할 수 있다.

종로 일대 차선들이 차선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다양한 왕복 차선으로 띠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교통체증이 발생하며, 차량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보행자들에게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보인다. '인본주의'로는 종로 일대 보행화할 필요성이 보인다. 또한, 인근 공원면적이 역사 도심의 30%(2011년 기준)를 차지하며, 차도를 줄이면서 보행로를 확장시켜 보행화의 시행은 보도의 확장할 뿐만 아니라 넓은 보행공간이 도시와 보행의 연결성 개선할 조경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보행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지인 종로 일대의 역사적 경제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도시와 보행이 연계되는 연결적 조경 설계를 구축하여, 건물과 거리의 분리

를 통합하고, "인본주의"를 향한 도심 모습을 재건설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종로 일대의 교통 및 현황을 조사하고, 종로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보행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설문 조사를 분석하여 종로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했다. 그 결과를 도출하여 보행 활성화를 시키며, 도시와 보행의 연결성에 적용할 수 있는 조경 설계를 보여준다.

II. 본론

1. 종로 일대 현황 및 분석

종로 일대는 역사 도심의 30%를 차지한 역사성을 가진 관광 가치가 높은 곳이다. 종로 일대는 도심 녹지 연결성이 없고 차선도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며, 차량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보행자들에게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 상권, 음식점 등이 있어 물건전달을 위해 보행로보다 보차혼용 도로가 많으며, 보행로에서도 주차된 곳이 많아 종로 일대 가로에 제대로 된 보행로가 주로 없다. 대부분이 업무와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건물의 용도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종로 일대의 기존 공간들은 보행에 필요한 안전성도 약하고 기존 녹지 공간의 이용도도 감소한다.

2. 종로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50명을 대상으로 종로 일대 도시재생 보행화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연령층의 답변으로 보아 대부분은 길을 지나가는 목적으로 종로 일대를 이용하였고, 노인들은 주로 휴식이나 방문이 목적으로 종로에 오셨고, 젊은 20대들은 주변 명소들을 방문하고자 보행의 목적이 되었다. 대부분 응답자들은 자전거도로가 개선되어 이용도를 높이고 싶다고 하였고, 보행의 폭을 넓히는 계획에 다수가 찬성하였다. 뿐만 아니

라, 휴식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보행자의 안전성이 우선시 되는 보행로를 원한다는 답변을 보였다.

3. 도시와 보행의 연결성에 적응한 조경 설계

물길 재생: 현재는 옛 물길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오늘날 서울 도심 아래에는 옛 물길을 따라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 옛 물길을 다시 설계하면, 역사성을 보존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경관이 조성된다. 또한, 옛 물길 중심 역사문화 특화형 재생 효과를 기대한다.

공공공간-‘공유마당’ 조성: 공공공간이 부족한 종로 가로에 건물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공유마당’을 마련한다. 공유마당의 토지는 공공의 것이지만, 민간이 같이 운영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며, 턱이 없는 짝지 공원을 조성하여 피맛길 근처에 휴식 공간 및 녹지 공간 제공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며 그린 인프라를 형성하여 도심 속 작은 공원을 제공한다. 설계한 ‘공유마당’을 통해 종로의 보행로와 도시를 연결하며, 보행 활성화 장소로 만든다. 또한, 보행 친화 특화형을 통해 재생 효과를 기대한다.

녹지 인프라 조성: 보행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보행 전용 공간의 활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속도 구역화 라인을 통해 중심 보행로가 종로 가로에 형성된다. 녹지 인프라의 조성을 통해 보행 도로, 차도와 주변 상가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도시 근린생활시설(상권) 특화형 재생 효과를 기대한다.



Figure 1. 종로 일대 공공공간 공유마당 위치(주황색)

III. 결론

도시재생은 복합적인 발전의 과정으로, 단순한 물질적 공간의 재생이 아니라 도시민들을 위한 존재이다. ‘인본주의’적인 도시재생이 현재 도시재생 발전의 중심이 되었다. 보행화는 세계적으로 발전적인 추세로 보이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보행화는 환경친화적이고 도시공원 간의 연결을 향상시키는 데 이롭다. 동시에 도시와 보행의 연결성을 가진 조경 설계는 도시재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보행 활성화도 촉진시킨다. 본 논문은 조경 설계의 관점에서 도시재생 보행화의 전제하에 도시와 보행의 더 나은 연결을 ‘인본주의’적인 도시재생 전략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1. 이석환(2017) 부산의 도시재생 : 도시재생 이해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
2. Zhu, Z. R.(2012) Research on Continuous Design of Urban Pedestrian Space Landscape [D]. Hefei University of Technology.
3. Huang, J., D. I. Yang and X. M. CAI(2019) Research based on the public life of the old streets on foot share reform [J]. Journal of Urban Architecture.
4. Jin, X.(2017) Research on urban central Renewal Strategy Under Pedestrianization Guidance [C]/ Sustainable Development Rational Planning - Proceedings of 2017 China Urban Planning Annual Conference.
5. William Hollingsworth Whyte (197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6. 이신혜 <걷는 도시 서울> 서울연구원.